**교제와 나눔**

**\*\*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ㆍ토요기도회:** 매주 토요일 07시 Teestube

**ㆍMBA 말씀일기 교실:** 8월 19일 주일 14시 개강(2시간 x 5), Teestube

**ㆍ이스라엘 성지순례 참가자 항공권 예매:** 11월 19-24 순례 예정,

오늘까지 여권 사진면 사본 제출, 1인당 300유로 선불 요망

**ㆍ지난 주 방문:** 이지나

**ㆍ한국방문:** 전하라, 오경민

**ㆍ등록:** 박상훈

**ㆍ생일:** 김진아

**ㆍ손교훈 목사:** 8/10-11 복흠한인교회수련회 인도, 8/12 쾰른한빛교회 설교

**◆말씀일기 일정**

일/왕하9:27-37 월/왕하10:1-17 화/왕하10:18-36 수/왕하11:1-21

목/왕하12:1-21 금/왕하13:1-13 토/왕하13:14-25 일/왕하14:1-16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47독)**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8월 5일** | **8월 12일** | **8월 19일** | **8월 26일** |
| **예배기도** | 정정아 | 허지은 | 김다니엘 | 박종희 |
| **말씀일기** | 손교훈 | 천춘자 | 이상규 | 조경숙 |
| **안내위원** | 정기승, 예배부 |
| **헌금위원** | 박종희, 신일수 |
| **애찬봉사** | 밥상 여섯 | 밥상 일곱 | 나라주일 | 밥상 하나 |

**35-31호 2018년 8월 5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골3:14)

주일예배: 12:00 Fliedner Saal

유초등부예배: 12:00 Teestube

청소년부예배: 12:00 Teestube

토요기도회:07:00 Teestube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Mike Lee

☏ 0211-4166 3284 HP. 0157-7388 7498

**교육/ 이재용 목사** HP. 0157-5346 6942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 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오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예배부름/Eingangsgebet …………………………………………………………………… | 다함께인도자 |
| ※찬송/Gemeindelied …………………………… 29장 ………………….…………… | 다함께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 다함께 |
| 성시교독/Wechselwort ……………….. 교독문 72번……………................ | 다함께 |
| 찬송/Gemeindelied …………......………… 438장 …………………………… | 다함께 |
| 기도/Gebet ………........………………………………………………............................ | 정정아 집사 |
| 말씀일기/Bibeltagebuch …………………………………………….............................찬양/Loblied ......…………………………….......………………………….......………… | 손교훈 목사찬 양 대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 마가 2:1-12 …..….....……..…… | 다함께 |
| 설교/Predigt ……….....……..……..…… **집 주인** ....….....……..…….....….. | 손교훈 목사 |
| 찬송/Gemeindelied ……….…………….… 459장 ……….……………….……합심기도/Gebet ……………………………………………………………………………봉헌/Kollekte …………………………………………………………………………………… | 다 함 께다함께다함께 |
|  교제/Bekanntmachung …….....................................................…………................ | 다 함 께 |
| ※주기도송/Vaterunser ………………………………………......................…………… | 다함께 |
| ※축도/Segen ……………………………………………………………………...................... | 손교훈 목사 |

**※는 함께 일어섭니다.**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왕하8장 ‘가까운 사람’ ◈**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문제다. 멀리서도 돕는 이가 있는 반면에, 가까이서 해롭게 하는 이가 있다. 병든 아람 왕 벤하닷은 최 측근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 자신의 병이 나을 병인지 죽을 병인지를 묻는다. 분명 나을 병이었지만, 엘리사의 경고(10,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고…알게 하셨느니라”)를 들은 하사엘은 탐욕을 따라 제 발로 그 길을 간다. “왕이 반드시 살아 나시리이다 하더이다…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으매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14-15).

한편,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 두 사람 모두 가장 가까운 가족, 즉 아내와 어머니 등의 영향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 남자는 여자 하기에 달렸다는 조금 귀여운 말도 있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심한 말도 있다. 물론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는 긍정적인 말도 있다. 이런 말들의 가치와 옳고 그름을 떠나, 가까운 사람 특히 어머니나 아내가 가족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함은 두 말할 것도 없다.

누구와 함께 일하며 누구와 함께 사느냐 하는 것은 인생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당연히, 귀한 만남과 동행을 위해 기도하는 게 지혜다. 그러나 그게 도를 넘어 이해타산에 따른 정략적인 것으로 흐를 때는 결국 불행의 씨앗을 심는 셈이 된다. 오늘 말씀 표현을 빌리자면, “아합의 집 길로 행하”(27)게 되는 것이다.

돌아보면, 나는 누구처럼 깊이 그리고 오랜 동안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손익 계산이 잘 안 되는 허술함이 나로 하여금 최소한 아합의 집으로 향하지 않게 도와준 것 아닌가 생각도 든다. 그러고 보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친구 및 동역자들, 교우들, 아내, 자식들, 양가 어른들까지 좋은 사람들로 가득하니 참 감사할 뿐이다.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